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1.(금) 11:00 < 7.22.(토) 조간 > 배포 2023. 7. 21.(금)

#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금)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 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하였고, 대(對) 미국(0.3%)·유럽연합(EU)(5.7%)은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 세계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9.8%)·디스플레이(△47.9%)·석유화학(△23.9%)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 국제(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대(對) 아세안 수출의 48.3%) 수출 또한 정보통신(IT) 업무 현황 부진으로 반도체(△29.1%)·디스플레이(△17.0%) 수출이 급감하였다.

한편 미국·유럽연합(EU)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美 54.2%, EU 55.6%)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 기계(美 4.1%, EU 8.7%)·양극재(美 28.6%, EU 92.3%)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새로 마련하고, 주요국과의 정부 간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를 통해 발굴한 수출·수주 사업(프로젝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확대인 만큼, 신흥국들과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지 진출 애로를 자세히 점검(모니터링) 및 해결해 나가고, 디지털 경제·저탄소 친환경 등 신(新)통상 현안(이슈)도 새로운 수출기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무역정책관<br>수출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창훈 (044-203-4040) |
|---|---|---|---|---|
| | | 담당자 | 사무관 | 여수향 (044-203-404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